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의견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적에게 두려움, 국민에 믿음 주는 강군 돼야”

윤석열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도발엔 응징·보복이 억제 수단” 강조  
전반적 대응체계 재검토·보완 지시  
감시·정찰·요격시스템 등 현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가장 강력한 도발 억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입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뿐만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

는 강군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하고,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ADD 방문은 최근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요격시스템을 포함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문은 무기체계 개발 현황 보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 순시, 연구원들과 동석 오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인기·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실효적 전력증강 추진 필요성 등을 살폈다. 아울러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과 실전적 훈련에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을 하고, 민·군 기술협력사업과 민간 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

서현우 기자

## 육군 ‘급식 혁신’ 새해엔 더 속도 낸다

‘더 좋은 병영식당’에 현대화 취사기구 추가 보급  
매달 한 차례 맛집 외식 ‘지역 상생 장병 특식’도

육군이 새해 ‘더 좋은 병영식당’에 현대화 취사기구를 추가 보급하고, 기본급식비 예산을 통합 운영해 장병 선호를 최우선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는 등 급식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육군은 29일 “현재 297곳을 운영하는 더 좋은 병영식당을 2026년까지 1189곳으로 확대하고, 현대화 취사기구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육군은 현재 더 좋은 병영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병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수준 높은 급식을 조리할 수 있는

여러 조리 기구를 도입했다.

소규모 취사장에서도 안전하고 맛있는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소형 튀김기, 배식 시간 내내 음식의 온기를 유지해주는 온장고, 여름철 원활한 얼음 공급을 위한 제빙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육군훈련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조리 로봇도 시범 보급했다.

육군은 장병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더 좋은 병영식당을 크게 늘려 궁극적으로 전·후방 모든 부대 장병들의 전투력을 높여줄는 방침이다.

새해부터 더 좋은 병영식당을 추가하고, 현대화 취사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동시에 올해 대대급 이상 취사장에 지원했던 식기세척기 임차비를 중대급 이상으로 확대해 장병 부담을 더 줄이기로 했다.

육군은 또 내년부터 주·부·후식비를 기본급식비로 통합해 단일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급식예산 집행과 결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대가 기본급식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장병들의 기호에 맞는 식단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부대별 ‘지역 상생 장병 특식’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내년 부터 매달 한 번씩 지역 맛집 메뉴나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를 장병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더 좋은 병영식당을 비롯한 급식 혁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전투력 상승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